

2014년 6월 28일 시행
서울시 국어 기출문제해설

1. 다음 중 70세를 가리키는 말로 옳은 것은?

- ① 이순(耳順) ② 종심(從心)
- ③ 지천명(知天命) ④ 불혹(不惑)
- ⑤ 이립(而立)

답) ① [난이도 하, 한자어]

70을 의미하는 '종심(從心(종심))'은 논어의 위정(爲政) >편에서 공자가 칠십이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 ① 60:《논어》〈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가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③ 50:《논어》〈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가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④ 40:《논어》〈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가 마흔 살부터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 ⑤ 30:《논어》〈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했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 문장의 호응이 어색한 것은?

- ①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② 아직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③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 ④ 그다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⑤ 오직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길 뿐입니다.

답) ③ [난이도 중, 올바른 표현]

'모름지기 ~ 해야 한다'의 꼴이 자연스럽다. '모름지기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로 쓰는 것이 옳다.

- ① 부사 '절대로'는 서술어 '아니다'와 호응
- ② 부사 '아직'은 서술어 '않다'와 호응
- ④ 부사 '그다지'는 서술어 '않다'와 호응
- ⑤ 부사 '오직'은 서술어 '뿐이다'와 호응

3.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의 진술 중 옳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다리(脚)'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에도 쓰인다.
- ② '짐승'은 '衆生'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가리킨다.
- ③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
- ④ '어여쁘다'는 '조그맣다'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의 의미이다.
- ⑤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었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쓰인다.

답) ④ [난이도 중, 이론문법]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의 뜻이었다. 지금은 '아름답다'로 의미가 이동되었다.

- ① '다리(脚)'는 의미확대
- ② '짐승'은 의미축소
- ③ '사랑하다'는 의미이동
- ⑤ '어리다'는 의미이동

4. 다음 예문의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봄·여름·가을·겨울, 두루 사시(四時)를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중에도 그 혜택을 가장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萬山)에 녹엽(綠葉)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

- 이양하, <신록예찬> 중에서

- ① 두루 ② 가장 ③ 풍성히 ④ 아낌없이 ⑤ 아름답게

답) ⑤ [난이도 중, 이론문법]

'아름답다'는 형용사다. 이것이 부사형인 '아름답게'로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용사의 부사형이며, 품사는 '형용사'가 된다. 나머지는 '부사'에 해당한다.

5. 다음 예문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 ①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고대했다.
- ③ 봄이 되니까 온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
- ④ 돌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을 직감했다.
- ⑤ 철수는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답) ③ [난이도 중, 이론문법]

'봄이 되다.'와 강산에 꽃이 가득 피었다.'라는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① '소녀가 예쁘다.'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

- ② '비가 오다'라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 ④ '지금이 중요한 때이다.'라는 명사절을 안은문장
- ⑤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인용절을 안은문장

6. 다음 단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외래어 표기의 원칙은?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

- ①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만을 쓴다.
-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음에 가깝도록 둘 이상의 기호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이미 굳어진 외래어도 발음에 가깝도록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원음에 더욱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 문자나 기호를 만들 수 있다.

답) ① [난이도 중, 어문규정]

'콩트, 더블, 삐에로'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 ② 외래어 표기법 1장 3항에는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고 규정
- ③ 외래어 표기법 1장 2항에는 '외래어의 1음운은 1기호로 적는다'라고 규정
- ④ 외래어 표기법 1장 5항에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
- ⑤ 외래어 표기법 1장 1항에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규정

7.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장들이다.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 ①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결혼을 한다고 한다.
- ② 그 연속극은 가정에 충실한 주부와 남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 ③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보았다.
- ④ 아내는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했다.
- ⑤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았다.

답) ⑤ [난이도 중, 이론문법]

'배'가 '배梨' '인지 배[復]'인지 또는 '배[船]'인지 모호하다

즉 '어휘적 중의성'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구조적 중의성'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 ① 내가 만난 사람이 '친구'인지 '친구'의 동생인지 모호하다
- ②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주부'인지 '남편'인지 모호하다
- ③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각각 찾아보았는지, 아니면 국어 선생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을 찾아보았는지 모호하다
- ④ 남편과 아들을 다순 비교해서 아들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아들을 좋아하는 것

보다 더 아내가 아들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8. 다음 문장에 쓰인 수사법과 같은 수사법이 쓰인 것은?

우리 옹기는 양은 그릇에 먹살을 잡히고 플라스틱류에 따귀를 얻어맞았다.

- ① 그는 30년 동안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고서 붓을 들기 시작했다.
- ② 지금껏 역사를 굽어본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 ③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④ 보고 싶어요, 붉은 산이, 그리고 흰 옷이.
- 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답) ② [난이도 중, 문학이론]

의인법을 찾으면 된다.

- ① 대유법 : 유니폼 - 운동, 붓 - 공부
- ③ 점층법 : 돈(적음) → 명예(많음) → 건강(모두)
- ④ 대유법, 도치법 : 붉은 산 -우리 국토, 흰 옷 - 우리 민족
- ⑤ 은유법 : 호수(보조관념). 마음 (원관념)

9.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인간은 흔히 자기 뇌의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또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조차 자기 뇌의 15% 이상을 쓰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 말에 신빙성을 더한다. 이 주장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로 추정된다. 그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20%를 사용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한발 더 나아가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에 와서는 인간이 두뇌를 단지 1% 이하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인간의 두뇌 활용도가 단지 0.1%에 불과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기됐다.

- ① 인간의 두뇌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 ② 어른들도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④ 인간의 두뇌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⑤ 어린 시절부터 개성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답) ⑤ [난이도 중, 독해]

제시된 지문의 주제는 인간이 자신의 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뒷받침 문장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지문에서 언급하는 '두뇌' 그리고 그에 따른 '능력'이나 '재능'에 대해 적어야 한다. 개성 있는 인간을 위해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10.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올해 신입생 입학율이 저조하다.
- ② 네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
- ③ 알고도 모르는 채하였다.
- ④ 남술의 처는 또 한번 웃기 잘하는 그의 입술을 방긋 벌리었다.
- ⑤ 껌질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

답) ④ [난이도 중, 어문규정]

- ① 입학률 : 'ㄴ'과 '모음' 뒤에 '率'은 '율'로 적고, 나머지는 '률'로 적어야 한다.
- ② 어린이란 : 순우리말이나 서구 외래어 뒤에 '欄'은 '난'으로 적고 한자어는 '란'을 적는다.
- ③ 채하였다 : '채하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동사다. 그러나 '채'는 '-은/는 채' 구성으로 쓰여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의 의존 명사이다.
- ⑤ 껌질째 : '째'는 일부명사 뒤에서 '전부' 또는 '그대로' 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11. 다음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예들 중 일부이다. 아래 보기의 설명 가운데 이 예들을 통해서 알기 어려운 것은?

잇몸, 바닷가, 뒷일, 전셋집

- ①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②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③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④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 ⑤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답) ⑤ [난이도 중, 어문규정]

- ① 바닷가 ② 잇몸 ③ 뒷일 ④ 전셋집 ⑤ '훗일'에 해당된다.

12.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는 문장은? (√ 는 띄어쓰기 부호)

- ① 옷√한벌√살√돈이√없다.
 ② 큰√것은√큰√것√대로√따로√모아√뒤라.
 ③ 강아지가√집을√나간√지√사흘√만에√돌아왔다.
 ④ 이√나무는√10√미터가√넘는다.
 ⑤ 합격했다는√말에√뿔듯이√기뻐하였다.

답) ③ [난이도 중, 어문규정]

'지'가 '시간'의 의미일 때는 띄어쓰고, '의문'의 의미일 때는 붙여 쓴다.

- ① 옷√한벌√살√돈이√없다. : 단위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② 큰√것은√큰√것대로√따로√모아√뒤라. : '대로'는 조사로 붙여 써야 한다
 ④ 이√나무는√10미터가√넘는다. : 아라비아 숫자 뒤에 당위성 의존명사는 붙여쓴다
 ⑤ 합격했다는√말에√뿔√듯이√기뻐하였다. : '듯'은 의존명사로 띄어 써야 한다.

13.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궁도런님 :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② 윤뚝뚝이 :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③ 책상물림 :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④ 두루치기 :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
 ⑤ 대갈마치 :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야무진 사람

② [난이도 중, 어휘]

'윤뚝뚝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4. 다음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묶은 것이다. 이들 가운데 표준어가 아닌 예가 들어 있는 것은?

- ① 눈대중 - 눈어림 - 눈짐작
 ② 보통내기 - 여간내기 - 예사내기
 ③ 멀찌감치 - 멀찌가니 - 멀찍이
 ④ 녇쿨 - 덩굴 - 덩쿨
 ⑤ 되우 - 된통 - 되게

답) ④ [난이도 중, 어문규정]

표준어 규정 3장 5절 26항에 의거하여 '녕쿨'과 '덩굴'은 복수 표준어이지만 '덩쿨'은 표

준어가 아니다.

15. 다음 문장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순서대로 바르게 옮긴 것은?

그는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그 집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소문이 있다.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 한다.
 그의 대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어서 혼란스럽다.

- ① 不淨- 不正- 不正- 否定
- ② 不正- 不淨- 不定- 否定
- ③ 不定- 不淨- 否定- 不定
- ④ 不貞- 否定- 不淨- 不定
- ⑤ 不貞- 不定- 否定- 不淨

답) ② [난이도 중, 한자]

- 不正(부정) :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
 - 不淨(부정) : 깨끗하지 못함. 또는 더러운 것.
 - 不定(부정) : 『수학』 방정식이나 작도(作圖) 문제에서 그 답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일.
 - 否定(부정) :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단, '부정(不貞)'은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일'의 의미

16. 다음 사자성어 중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桑麻之交 ② 刎頸之交 ③ 膠漆之交 ④ 金蘭之交 ⑤ 水魚之交

답) ① [난이도 상, 한자성어]

'상마지교(桑麻之交)'는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머지는 모두 친한 친구를 뜻한다.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③ 교칠지교(膠漆之交) : 아주 친밀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이르는 말.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백거이가 친구 원미지(元微之)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래한다.

④ 금난지교(金蘭之交) :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

⑤ 수어지교(水魚之交) :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는 뜻으로,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다음 중 창작군담소설(일명 영웅소설)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영웅의 일생 이라는 전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
- ② 대중소설적 성격이 강하다.

- ③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 ④ 시·공간적 배경은 16~17세기 조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⑤ 조선 후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④ [난이도 중, 지식국어 - 문학사]

군담소설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고전 소설이다. 군담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창작한 작품이 많다. 소재의 민감성과 스케일 때문에 대부분 중국 배경이 많다.

18. 19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진술 중 잘못된 것은?

- ① 김동리,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했다.
- ②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이 크게 유행했다.
- ③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되고 다양한 기법이 실험되었다.
- ④ 전원파, 청록파, 생명파 등이 등장했다.
- ⑤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KAPF)가 해체되었다.

답) ① [난이도 중, 지식국어 - 문학사]

동반작가란 프로문학이 한창 우세하던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프로 문학 운동과 단체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 취지에 찬동하고 보조를 같이한 일군의 작가를 뜻한다. 대표인물에는 '채만식, 이효석, 유진오, 박화성' 등이다. '김동리'와 '김유정'은 관계가 없다.

- ② 1925년대의 '카프'의 반발로 순수문학이 유행했다.
- ③ 우리나라에서 모더니즘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퇴조하고 일제의 군국주의가 노골화되던 1930년대 초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김기림, 이양하, 최재서 등이 주로 영미 주지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을 비판하면서 지성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이론을 펼쳤다
- ④ 1930년대에 카프가 퇴조하고 다양한 유파가 등장
- ⑤ 1930년대 대검거령에 의해 1931년 1차, 1934년 2차 검거를 거쳐 1935년에 공식 해체

19. 다음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 박목월, <청노루>

- ① 시상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②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③ 시상이 화자의 심리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④ 시상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⑤ 시상이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답) ① [난이도 중, 운문문학]

‘청운사 낡은 기와집, 자하산 봄눈,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열두 굽이, 청노루 맑은 눈, 눈속에 구름’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 넓고 먼 원경에서 좁고 가까운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20. 다음 중 괄호 안의 한자어가 적절히 사용된 것은?

- ① 가상(假像)현실에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다.
- ② 가시(可示)적인 성과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 ③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인생 편력(遍歷)이 드러나 있다.
- ④ 그 이야기는 과장(誇長) 없는 사실이다.
- ⑤ 삶에 대한 통찰(通察)이 묻어나는 말씀이다.

답) ③ [난이도 상, 한자어]

‘편력(遍歷)’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함’의 뜻이다

- ① 가상(假想) : 주관적으로는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짓 현상
- ② 가시(可視) :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 ④ 과장(誇張) :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
- ⑤ 통찰(洞察) :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